



KBA코리아, KBA로드쇼 개최

자동화시스템으로 작업준비시간 최소화

KBA코리아(대표 케네스 엠 한센)는 지난 10월 31일 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KBA로드쇼'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요르겐 베일 KBA 본사 마케팅이사가 라피다106, 145 등 KBA 중·대형포맷인쇄기에 대한 특징과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요르겐 베일은 KBA에서 R&D를 담당했으며, 지금은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케네스 엠 한센
KBA코리아 사장

요르겐 베일
KBA마케팅 이사

케네스 엠 한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덕수, 드림애드, 성원애드피아, 고문당, 원창 등 KBA인쇄기를 구입하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될 부가 가치 인쇄에 대한 기술, 효율성, 경제성, 운용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올해 처음 개최된 로드쇼는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신기술 탑재한 라피다 106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성 향상에 큰 도

움을 준 라피다106은 2004년 처음 선보였다. 라피다106은 준비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자동화는 드라이브트로닉(DriveTronic) 피더에서 시작한다. 고성능을 위해 만들어진 피더로 4개의 독립된 서보 모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작업전환시간, 조작, 유지보수 및 소모품 절감 면에서 뛰어난 이점을 제공한다. 중형사이즈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가능하며, 양면인쇄에서는 최대 1만 8000매까지 가능하다.

사이드레이가 없는 인입장치인 드라이브트로닉 SIS는 인쇄물 변경 시 수작업을 통한 조절이 필요치 않아 기계식 또는 공압식 시스템 보다 더 원활한 용지

이송을 보장한다.

드라이브트로닉 SPC는 동시 판 교환 시스템으로 기어나 클러치를 없애는 등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를 없앴다. 다 이렉트 드라이브모터를 사용해 각각의 판통에 장착했다. 그래서 모든 준비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드라이브트로닉 SFC는 동시 코팅판 교환시스템으로, 드라이브트로닉 SFC와 SPC를 함께 사용하면 모든 작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시세척이 가능한 클린트로닉(CleanTronic) 세척 시스템, 아니록스로더를 완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아니록스로더(AniloxLoader) 시스템, 낮은 에너지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베리드라이(VariDry) 테크놀로지 등을 갖추고 있다. ☺